

건협 28대 회장선거 12월 17일로 결정



대한건설협회 제28대 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치러진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7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3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협회장 선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추진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규정 일부 개정 안도 심의·의결했다. 협회에 미디어 소통본부가 신설되고, 협회장 선거 시 추대위원회는 경선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설치하도록 했다.

유주현 회장은 “협회는 적정공

사비 확보, SOC 예산 증액 및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민간공사의 대금지급보증의 의무화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민간공사 미수금에 대한 안정적인 공사대금 확보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하반기에도 공사비 정상화 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SOC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